

주간기도정보

2024. 6. 11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라”

‘교회도 신앙·애국 교육 함께 해야’

살롬나비, 제69회 현충일 맞아 논평 발표



지난 6일 현충일을 맞아 살롬을꿈꾸는나비행동(이하 살롬나비)이 나라를 지킨 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한국교회 역시 신앙교육과 애국교육을 같이해 자유 평화가 이어지는 축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살롬나비는 현충일은 민족과 국가의 수호와 발전에 기여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열사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국가 기념의 날이라며, 선조와 열사들이 피와 목숨을 바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살롬나비는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에는 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 6.25 전쟁에서의 30만 명의 전사자, 순국의 아픔을 지닌 유족들과 후손이 있다며 “희생당하신 분들의 애국정신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을 위로할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그들의 나라 사랑의 정신을 물려줘야 한다”고 전했다.

살롬나비는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감사하고, “나라를 사랑하여 순국의 길을 걷은 분들의 애국의 실천 정신을 고귀하게 기리면서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며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국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평화는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 “문맹이었지만 지혜로웠던 부모들은 자녀의 내일을 위해 땅 흘려 농사짓고 땅과 소를 팔아 교육시켰다. 그러한 정신이 애국정신으로 이어져 부모세대들은 포기하지 않고 내일의 꿈을 향해 달려왔다. 그러므로 자유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현충일에 국기를 게양하고 국립묘지를 방문해 현충일을 의미 있는 날로 지키자”고 당부했다.

살롬나비는 국가가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세계 각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죽은 미국 병사들의 시신이 미국에 도착하면 미국 대통령이 먼저 비행장에서 맞이한다. 6.25 전쟁, 6.29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 순직 용사들과 그 유족들에 대해 국가는 이들의 순국 행위를 제도적으로 보상해 줌으로써 장병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산 독재 체제 아래서 기본적 인권을 말살당하고 살고 있는 북한 동포의 자유, 지구촌의 화약고 이스라엘 가자 지역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촉구하며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휴전이 되어 더 이상 선량한 백성들의 생명이 헛되이 죽어가는 사태를 종결”하고,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의 지도자들과 상대국의 국민들에게 평화의 그날이 속히 도래하여 쌍방이 잘 살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택하도록 힘써 기도하자”고 덧붙였다.

살롬나비는 끝으로 “현충일을 맞아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상기하면서 다시는 전쟁과 국가적인 재난이 없도록 국민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힘써 실천하자”고 강조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사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예레미야 9:24)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선조와 열사들의 목숨 바친 희생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희생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추구하는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임하길 더욱 사모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버려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신 것을 한국교회가 본받아 마땅히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소서. 또한 지금도 악한 정권 아래 신음하는 북한 동포와 전쟁 중인 나라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쟁이 그치고 참 평화가 오도록 한반도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북한, 소년단 창립일 맞아 ‘군력 강화’ 부각...소년들도 무장장비 마련해야

한국 앞 ‘괴뢰’ 붙이지 않은 북 학생들 사상투쟁 무대에...



북한이 조선소년단 창립 78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군력 강화를 위해 “무장장비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조선소년단 창립 78돌 경축 전국연합단체대회가 지난 6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 행사에서 보고를 맡은 문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항일의 아동 단원, 전학의 소년근위대원들의 정신세계를 본받아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서릿발치는 증오를 안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며 ‘소년호’ 명칭의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마련해 나라의 군사력을 백방으로 다지는 데 이바지할 것”에 대해 언급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길 당부한 것이다. 소년단은 지난해 소년단 창립 77주년을 맞아 방사포 ‘소년호’를 만들어 군에 증정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례처럼 소년단이 군 원호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충성심도 부각됐다.

북한은 전국연합단체대회 외에도 소년단 창립 기념 각종 행사를 개최하며 미래세대들의 ‘결속’을 다졌다. 전날 평양에서는 소년단원들의 야회가 진행됐다. 여기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리두성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등이 참석했다. 방북 중인 러시아 청년친선대표단도 참가했다.

또 전국 각지 도·시·군의 청년동맹위원회들과 학교의 소년단 조직들은 소년단 총회, 소년미풍열성자 회의, 소년단원들의 자랑 이야기 모임 등을 개최했다. ‘붉은 넥타이’가 상징인 조선소년단은 1946년 6월6일 창립됐으며, 청년단체인 애국청년동맹의 하부조직으로 이들의 지도를 받는다. 만 7세부터 13세까지 활동할 수 있다.

한편 북한 양강도 청년동맹이 한국 앞에 ‘괴뢰’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사상투쟁 무대에 세웠다. 양강도 교육부문의 한 소식통은 2일 “어제(1일) 오후 3시, 혜산시의 각 초급중학교(중학교)들에서 반동사상문화 척결을 위한 사상투쟁회의가 진행되었다”며 “사상투쟁회의는 양강도당 교육부가 아닌 양강도 청년동맹에서 조직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검열은 학생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사상교육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시험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며 “학생청소년들은 특히 북남 관계에 대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족화해, 평화통일, 하나의 민족이라는 개념을 버리지 못한데다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표현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해 검열 성원들을 당황케 만들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15일, 북한의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에서 남과 북을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이 아닌 “철저한 타국”,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했다. 이후 북한은 주민들에게 앞으로 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반드시 앞에 ‘괴뢰’라는 수식어를 붙이도록 조치했다.

소식통은 “사상투쟁회의 비판무대에는 북과 남에 대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다가 걸린 학생들, ‘불량청소년 그루빠(그룹)’의 단속에 걸린 학생들이 올라섰다”며 “북과 남에 대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다가 걸린 학생들의 경우 학부모들까지 비판무대에 올랐다”고 밝혔다(출처: 뉴스1, 자유아시아방송 종합).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디모데후서 2:16,21)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시편 119:9-10)

하나님, 군사력 강화를 위해 자라나는 어린 초등학생의 힘까지 보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행사를 통해 오히려 스스로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북한 정부를 돌아보옵소서. 정치적 입지를 위해 한반도의 개념까지 바꾸며 감시하는 김정은 정권의 끝을 모르는 탐심을 꾸짖어 주시고 자신의 망령되고 헛된 말과 행실로 자멸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이 세대를 분별할 선한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있사오니 북한의 다음세대에게 진정 교육되어야 할 진리와 주의 계명이 전해져 주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자들의 간구와 북한 성도들을 기억하사 복음과 기도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인내로서 선한 일을 하여 북한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내 말을 들려주어 사는 날 동안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신앙교육이 다음세대 기독교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영향

다음세대의 성경적 가치관 고찰...실질적인 적용과 대안 마련



청소년과 대학생의 신앙교육이 기독교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예담학교 연구팀이 최근 중·고·대학생 706명을 대상으로 7개 영역(교회, 창조론, 성과 결혼, 자신, SNS와 미디어, 사회, 음주와 흡연)의 인식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팀은 응답자 706명을 신앙생활 기간, 예배참석횟수 등으로 신앙의 정도를 측정해 신앙 강함, 신앙 약함, 신앙 없음 등 세 그룹으로 나누었고, 이들이 응답을 각각 백분위로 점수화 환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신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인식 영역인 교회와 창조론에서는 예상대로 두 그룹 간 점수 차이가 상당했다. 창조론 인식은 ‘신앙 강함’ 그룹이 81점, ‘신앙 없음’ 그룹이 43점으로 38점 차이를 드러냈다. 교회에 대한 인식도 ‘신앙 강함’이 88점, ‘신앙 없음’이 54점으로 34점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자신, SNS와 미디어, 사회, 음주와 흡연 등 나머지 영역에서의 두 그룹 간 기독교 가치관 점수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한준호 목사는 “차이가 없는 영역에 대해 교회가 이를 교육하지 않았거나 했어도 영향력이 없었다는 의미로 읽힌다”며 “교회 안에서 자란 후 세상과 맞닥뜨린 청소년들이 겪는 혼란까지 극복할 수 있는 신앙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종걸 한국기독교철학회장은 “학회 학술대회에서 고등학생이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다음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며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인 다음세대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고찰하고 관련 사역에 대한 신학적 보완점, 실질적인 적용,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지난 1일 ‘다음세대와 기독교’를 주제로 경기도 용인 중앙예담학교에서 열렸다. 고명진 목사는 ‘다음세대를 위한 성경 교육’이란 기조 강연에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 이후의 세대가 왜 다음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됐는지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언급하며 다음세대를 향한 바른 성경적 교육에 관해 설명했다.

고 목사는 “왜 성경은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와 그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표현했는가를 보면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바울조차 당대 유대교의 최고 석학의 자리에 있으면서 최고의 권력을 잡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알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며 “교육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승시켜 가르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출처 : 국민일보 종합).

네가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신명기 4:10)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골로새서 1:10,12)

하나님, 성경 지식은 있으나 실제적인 신앙을 나타내는 삶의 영역에선 믿지 않는 이들과 별 차이가 없는 다음세대의 안타까운 실상을 바라보며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미디어, 관계, 음주와 흡연 등 말씀과 무관했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지표들 통해 목마름으로 주를 찾으며, 죄의 실체와 복음의 능력을 밝히신 십자가를 깨닫게 하소서. 성경 교육을 통해 다음세대 안에 진리가 생명이 되어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이르도록 교회와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존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다음세대가 되어 삶의 예배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주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